

전통적인 제작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용과 시설장비 도입은 내일을 건 투자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문팩시밀리 이용한 분산인쇄체제 — 기술적인 측면 —

장원홍

조선일보 CTS본부 부분부장

신 문업계에 한바탕 새로운 경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전국 동시인쇄 개시' '영·호남지역 현지 인쇄' '24시간 뉴스 빨라져...' 등 화려한 구호를 내걸고 조간인 한국을 선두로 조선, 석간 동아·중앙에까지 이어지며 지역 분산(공장) 인쇄체제 갖추기가 한창이다.

신문역사 100년, 전통적인 제작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용과 시설장비 도입은 내일을 건 투자경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우선 그 배경에는 87년 10월 언론기본법 폐지후 신문업계의 자율경쟁시대의 도래, 연초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화시대가 활발히 전개되고 신문사간에 치열한 제작경쟁, 과도할 정도의 판매부수경쟁, 지속적인 증면경쟁, 무리한 광고수주경쟁 등에, 특히 해결키 어려운 난제중의

난제인 발송·배달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통한 경쟁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타개해나가기 위해 신문기업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작체제에 이르기까지 그 혁신방안을 기술분야에서 찾고자 하는 각사의 노력은 최근에 이르러 더욱 확실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정으로 새로운시대를 향한 '제2의 창업' 등, 기치를 높이 들고 내일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며 사옥(공장) 건설, 오프셋 운전기도입, CTS개발에 이어 경쟁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바로 신문 팩시밀리(Press Fax)를 이용한 지역분산(공장) 인쇄체제이다.

경쟁의 시작은 조선이 사고(8월 13

일자)를 통해 9월부터 대구·광주에서의 동시인쇄를 시작한다고 알리고 구체적으로 대구의 영남일보와 인쇄대행계약을 체결, 서울 본사에서 신문 팩시밀리로 지면을 대구로 전송, 대구 현지에서 인쇄된 신문을 부산 대구 등 영남지방에 배포키로 했으며 광주는 조광인쇄(주)와 계약, 92년 2월부터 현지에서 인쇄키로 하고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일보 영남취재 본부를 발족시킴으로써 본격화됐다.

한국도 '전국 동시인쇄' 시작을 역시 사고로 알리며 현지 인쇄공장인 경남 창원 공장을 8월 21일부터 정식 가동, 영남 전 지역과 전남지역 일부에도 동시인쇄된 신문을 배달해 선두주자로 나섰으며 10월부터는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배포지역을 확대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석간인 동아와 중앙도 지방 동시인

쇄를 추진중에 있고 이에 상응하는 취재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동아는 충청로 사옥건설, 그리고 이미 원격지 신문 팩시밀리 이용 경험이 있는 여의도와 함께 오금동의 수도권 분공장 건설에 힘쓰고, 10월 1일부터 영남지역은 대구의 영남일보사와, 호남지역은 광주 전남일보사와 인쇄대행계약을 맺고 신문팩시밀리를 이용한 지방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은 서울 가락동에 서울근교 분공장을 건설한데 이어 대구(성서공단), 광주(하남공단)에 분공장을 건설, 내년 3월부터 전국 동시인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향, 한겨레, 국민, 세계 등 서울의 다른 종합일간지들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 분산(공장) 인쇄체제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경쟁은 신문업계 전체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국내·외, 서울·지방 등 거리 및 시간의 격차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지역 동시인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동시인쇄를 위한 지면전송장치로서 신문팩시밀리의 도입이 각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문팩시밀리란 일반 팩시밀리와 같은 원리이나 신문지면의 구성요소(기사·사진 등)에 관계없이 전 지면을 질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고성능의 신문전용 팩시밀리이다.

이 신문팩시밀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이용, 세계 어느곳에나 윤전기와 연결 인쇄 배포할 수 있

〈표-1〉 국내신문사 신문팩시밀리 도입 현황

경향신문사	CROSFIELD 'PAGEFAX' 도입계약(91년 6월, 송수신 각 2세트씩). 대구 경북일보 및 광주 무등일보와 위탁인쇄계약 추진.
국민일보사	CHEMCO 시스템 1세트 도입, 양평동 공장으로 오프라인 전송(90년). 松下電送 'M-FAX' 2세트 도입, 오프라인 전송(91년 2월).
동아일보사	NEC시스템 3세트 도입, 여의도 공장으로 오프라인 전송(88년). 영남일보사에 위탁인쇄계약과 함께 NEC시스템 추가 도입예정(91년).
서울신문사	CROSFIELD 'PAGEFAX' 2세트 도입계약(91년 1월). 구로동 분공장 91년 8월 가동.
조선일보사	松下電送 'M-FAX' 2세트 도입(91년 7월). 대구 영남일보사로 전송 인쇄개시(91년 9월), 광주 조광인쇄(주)로 전송 인쇄개시(92년 2월예정), CTS와 온라인 접속예정.
중앙일보사	구형 RICOH로 미주지사 전송. 松下電送 'M-FAX' 3세트 도입계약(91년 1월). 가락동 분공장 91년 7월 가동. 東芝 CTS와의 온라인 접속예정.
한국일보사	구형 RICOH로 미주지사 전송. 신형 RICOH 'TELE-PRESS' 송신 2세트, 수신 4세트를 계약(90년 6월)하고 평창동 분공장으로 오프라인 전송가동(90년 12월). 창원분공장 2세트 91년 8월 가동.

*가나다순

으며 CTS에 온라인 접속되면 따로 지면을 스캐너에 입력시키지 않고도 본사(공장)와 같이 인쇄할 수 있다.

〈그림-1〉

더욱이 고해상도 스캐닝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압축, 고속 디지털 회선의 활용가능, 통신위성 이용 등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장비 자체 가격이 낮아지고 기업의 도입 활용가능성은 보다 넓어져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신문사들의 신문팩시밀리 도입현황은 〈표-1〉과 같다.

구미·일본에선 일찍부터

이 지역 분산(공장) 인쇄체제는 궁극적으로 공장자동화와 연결되지만 신문팩시밀리의 기술적 해결과 활용

은 이미 구미·일본에서 일찍부터 진행되어 이미 정착단계에 와있다.

그대표적인 경우는 구주지역의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뷴(1887년 창간)이다. 이 신문은 70년대부터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점확보에 나서 동시인쇄를 추진, 파리 본사로부터 런던 로마 등 구주권, 홍콩 도쿄 등을 잇는 아주권, 그리고 뉴욕 등 미주권에 이르기까지 파리에서 편집된 지면을 자국의 지구국을 거쳐 인공위성을 통해 신문팩시밀리로 전송, 각 지역 동시인쇄체제를 구축, 세계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 국제 영자지가 되었다.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1881년 창간)은 미국 최대의 발행부수를 확보하고 있는 국제 언론기업이다. 국

내 20여개 도시, 북·남미지역과 함께 유럽판은 브뤼셀에서, 아시아판은 홍콩에서 발행하는 등 그 부수는 200만부를 넘고 있다.

이 신문은 뉴욕에서 편집된 지면을 치코피(Chicopee)의 제작센터로 팩시밀리를 이용, 종합하고 이를 올란도(Orlando) 델라스(Dallas)를 통해서 또는 직접 각지역으로 보내 인쇄한다. <그림-2>

또한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케이스로는 무엇보다 유에스에이 투데이(1982년 창간)를 들 수 있다.

미국내 최초의 전국지를 내건 이 신문의 성공은 전국 다지역 동시인쇄체제의 착안에서 비롯됐다. 미국내 우수신문들까지 지방지적 성격으로 사세의 한계를 갖고 있으나 지역판의 제작으로 명실공히 전국지로 확산시키는데 성공했다.

신문팩시밀리란
신문지면의 구성요소에
관계없이 전지면을 질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고성능의 신문전용
팩시밀리다.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 등 동부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30여개 동시인쇄체제를 갖추고 워싱턴 DC에서 편집한 지면을 이들 지역에서 동시인쇄하고 있다.

일본의 예로는 니케이, 아사히, 요미우리 등 각사가 자사공장인쇄, 위탁인쇄, 해외인쇄 등으로 약 20여개 도시에서 매일 인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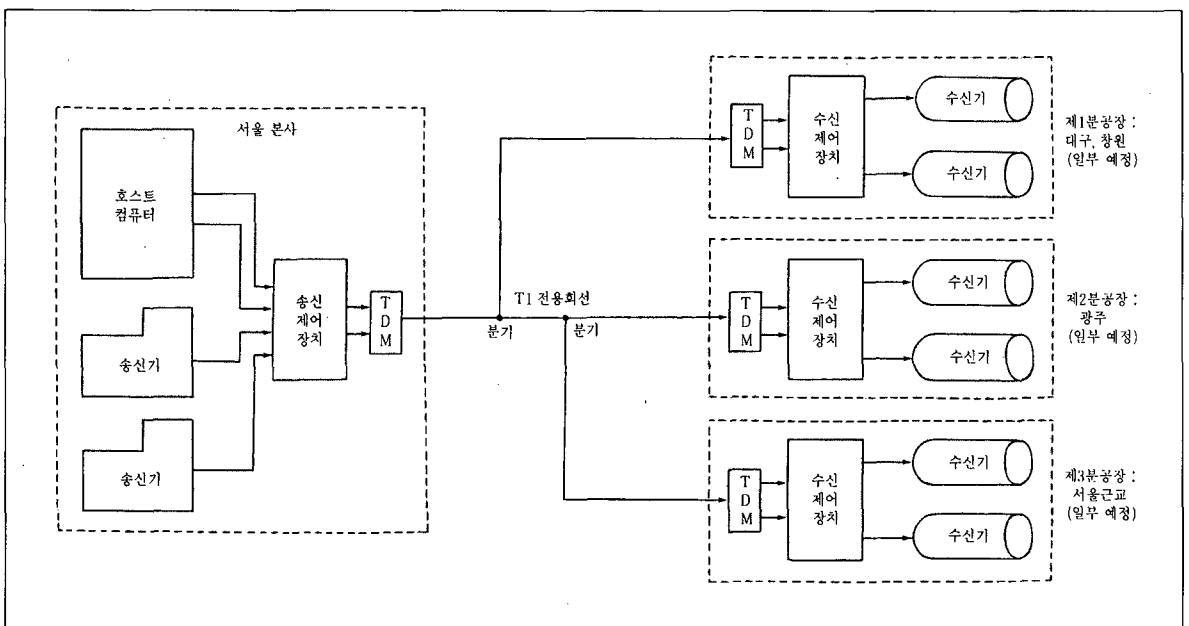
이들 주요 신문들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지역별 동시인쇄를 준비, 오늘의 현대화된 분산(공장) 인쇄체

제를 구축, 지방도시를 비롯한 지역거점을 확보해가며 도쿄 등 도시근교 분산(공장) 인쇄도 함께 갖추어 다양하게 각지로 최종판을 배포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도쿄판은 위성통신으로 전송, 해외에서 인쇄하여 항공편 발송시간을 하루 이상 단축하고, 니케이와 같이 靜岡신문과 같은 지방사와 인쇄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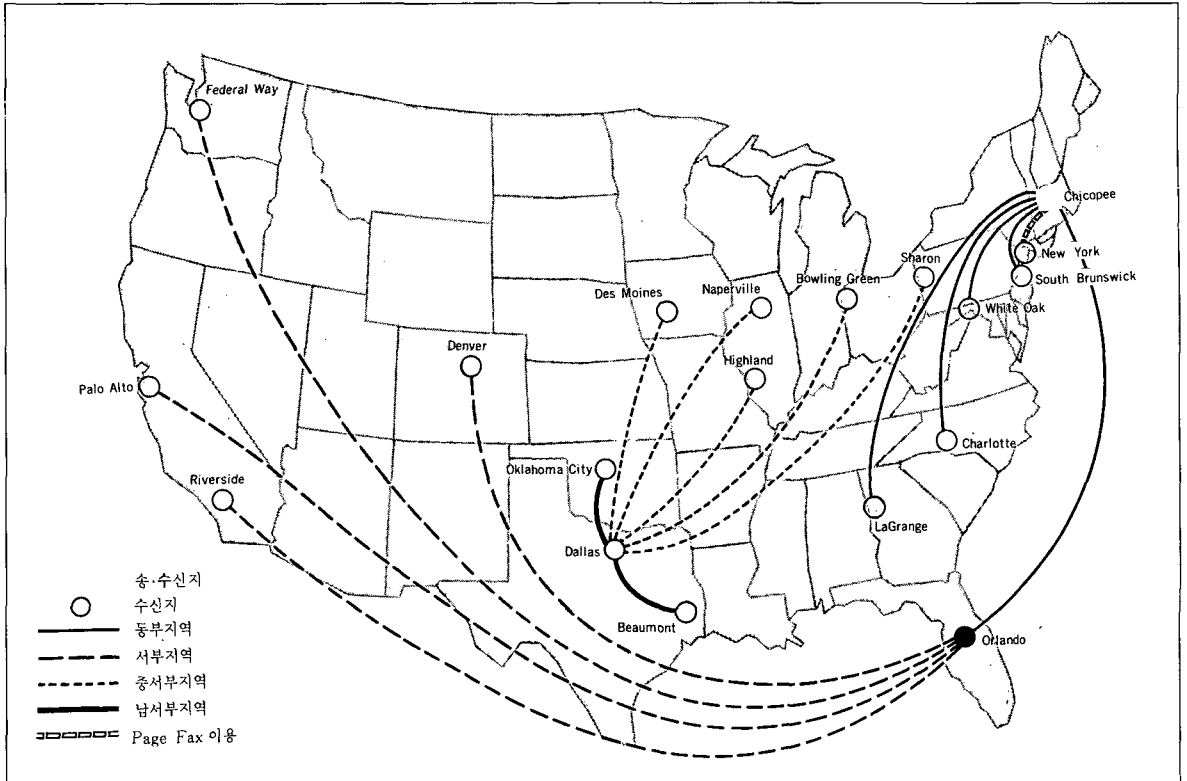
공동대처 필요

위에서 설명한 예와 같이 지역분산(공장) 인쇄체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더욱 확산되어 지역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 뉴스취급의 지방소외와 구문(舊聞)밖에 볼 수 없다는 불평을 해소해 전국이 동일한 정보권이 된다는 사실을 드높여 가며 각사 사세경쟁에 총력을 다해

<그림-1> 신문팩시밀리 시스템 개요



<그림-2> 월 스트리트 저널의 위성이용 지역분산 공장망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 근원적 이유로는 이제 한국의 신문발행인들도 신문의 앞날을 생각하고 상당히 걱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싶다. TV 등 전자매체의 발달과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위협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 신문은 신문대로 발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종전의 불확실한 예측에 안주하기에는 불안하고, 최근 신문기업간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해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출구를 기술분야에서 찾기 위한 노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미국신문협회가 20년대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듯이, 일본의 니케이, 아사히 등이 그러했듯이 한국신문도 경쟁속에서 미래를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도 시설 장비 투자의 능력이 있을 때.

끝으로 신문업계가 앞으로 이 지역 분산(공장) 인쇄체제를 추진해가며 해야 할일을 지적해 보면,

- 1) 우선 기술개발·이용 등 필요한 부분을 공동대처해야하며
- 2) 회선사용의 확대와 함께 회선 분기 방식 등을 당국과 협의하고
- 3) 회선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체계화하고
- 4) 회선사용은 무조건 전용방식을

벗어나 필요한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 5) 공장자동화를 추구, 운영의 합리화로 내실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 6) 자사 공장이어야만 한다는 지나친 경쟁과 투자를 지양, 인쇄대행(계약) 체제를 보다 적극 검토 추진하고
 - 7) 발송문제를 지역별·교통편별로 점검하여 공동수송방안의 재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와함께 현지 지방신문과 차별·특성화로 상호보완적 공생공존의 관계가 되도록 현명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